

치과에는 언제 가 봐야 하나?

이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기 진단을 받도록 한다. 그러면 충치도 조기에 발견해 낼 수 있고, 잇몸질환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아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가,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입에서 계속 악취가 난다든가, 잇몸의 모양이 달라진다면 잇몸질환의 증세이므로 치과에 가 봐야 한다. 또한 45세가 넘은 사람들에게는 구강암도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입안에 궤양이나 혹이 가시지 않고 자꾸 생기면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가 봐야 한다.

틀니의 경우에는?

틀니를 돌보는 일도 자연치아를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틀니는 매일 표면을 닦아 주어야 하며 (부엌용 세제를 사용하여 칫솔로 닦아도 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에 담가 두어야 한다 (원하면 물에 항균정제를 넣어도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매일 닦아주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틀니가 불편할 때는 그대로 참지 말고, 점점 받도록 해야 한다.

영어로 전화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31 450의 번역통역서비스(TIS)에 먼저 전화하면 된다.

<http://mhcs.health.nsw.gov.au> 의 Multicultural Communication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한국어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전화번호들은 출판 당시에 정확한 것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볼 예정입니다.
번호를 확인해 봐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